

어류양식업계의 현안과제



나해춘 사장
 통영시 세보수산
 TEL)011-584-9324
 E-mail) fishgood@dreamwiz.com

1. 개요

정부에서는 지난 1999년 한·중·일 어업협정 체결 이후 양식어업에 2004년말까지 2조 7백 66 억원을 지원하여 양식생산량을 현재 80여만 톤에서 150만 톤으로 확대한다는 양식어업육성정책을 제시하였다. 양식어민들은 이러한 수산정책에 힘입어 풍요한 어촌이 될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실은 양식 환경의 악화와 국내외적으로 시시각각 변화하고 나빠지는 시장 여건 때문에 키를 잃어버린 듯단배 처럼 흔들리고 있다. 앞으로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어업인의 80~90%는 상호 연대 보증 등으로 집단 도산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

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어촌 및 양식업계에 밀려든 오늘의 사태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단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이다.

정부의 기르는 어업 육성 정책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간단한 절차와 신고만으로 어업권 면허를 내어주고, 또 적극적으로 양식을 권장함으로써 양식업체의 수는 매년 점차적으로 늘어났다. 그 결과 생산량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양식업계는 다시 중흥기를 맞는 듯 하였다. 실제로 98년 대비 양식어업 면적은 매년 평균적으로 20% 증가하였으며(표 1), 2002년 기준으로 약 108%의 증가율을 보여 5년 사이 2배가 넘는 양적인 팽창을 가

표 1. 어류 양식어업 면적

(단위:ha)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계	1,205	1,291	1,378	1,638	1,409	1,647	1,592	2,372	1,651	2,696
해상가두리	297	774	415	1,037	430	1,087	465	1,192	506	1,286
육상수조식	869	275	879	236	898	230	889	330	940	280
축 제 식	39	242	84	335	81	330	238	850	205	1,179

※ 지방청 수산관리과, 수산기술관리소 자료.

져왔다.

이러한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생산량 및 소비량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시장의 동향을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렇게 정책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줄어든 반면, 업계에서는 양식 생산물의 과잉생산으로 가격은 턱없이 곤두박질 쳤다. 여기에 언론은 비브리오패균에 대한 미확인 과잉 보도까지 겹쳐 양식업계는 깊은 나락으로 추락한 것이다. 이렇듯 해양수산부는 양식 산업 조정자로서의 임무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나 싶다. 특히 2002년에는 양식 품종의 편중 현상이 심화되어 조피볼락의 경우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500g 어류가 kg당 4,000원 내외의 거래되는 상황이었다(표 2).

나아가 종묘 생산 현황을 살펴보면(표 3), 전국적으로 2001년 총 37,532만마리가 생산되었고, 이 중 경남이 16,532만마리로서 약 44% 차지하고, 전남이 20%를 차지하였다. 어종별 생산량을 보면 조피볼락이 18,500만마리로서 49%, 넙치가 14,000만마리로서 37%를 차지하는 등 이들 두 품종의 편중 현상을 엿볼 수 있으며, 참돔 등 각종 돔류가 4,967만마리로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종묘 생산품종인 조피볼락의 경우, 2001년 치어 생산량이 18,500만마리를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9년부터 지속된 자연산 조피볼락 치어의 대

표 2. 조피볼락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

구 분	1992	1994	1996	1998	2000	2001	2002
생산량(톤)	4,595	23,137	57,799	84,162	93,734	91,585	102,533
조피볼락(원/kg)	10,500 ~15,000	12,500 ~15,500	9,800 ~11,300	8,000 ~9,200	7,800 ~10,000	6,000 ~8,000	4,000 ~5,000

표 3. 2001년 전국 어류 종묘 생산 현황

(단위:만마)

어종 \ 지역	계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제주
총 계	37,532 (100%)	16,532 (44%)	1,000 (3%)	7,500 (20%)	2,500 (6%)	7,000 (19%)	3,000 (8%)
넙 치	14,000 (37%)	2,200	1,000	3,500	2,000	2,300	3,000
조피볼락	18,500 (49%)	12,500	-	1,000	500	4,500	-
돔 류	4,967 (13%)	1,767	-	3,000	-	200	-
점농어	40	40	-	-	-	-	-
송 어	10	10	-	-	-	-	-
볼 락	15	15	-	-	-	-	-

* 사단법인 종묘생산협회 제공.

표 4. 2002년 종묘 생산 현황

(단위:만마)

어종 \ 지역	계	경 남	경 북	전 남	전 북	충 남	제 주
총 계	25,668 (100%)	8,923 (35%)	870 (3%)	6,890 (27%)	1,540 (6%)	3,605 (14%)	3,840 (15%)
넙 치	10,695 (42%)	715	760	2,150	1,250	2,010	3,810
조피볼락	5,225 (20%)	3,365	110	1,150	170	430	-
돌 돔	1,869 (7%)	1,374	-	170	80	215	30
참 돔	3,810 (15%)	2,230	-	1,500	-	80	-
감성돔	2,589 (10%)	1,189	-	1,200	-	200	-
송 어	1,190 (5%)	20	-	500	-	670	-
볼 락	30	30	-	-	-	-	-
기 타 (은어, 황복)	260	-	-	220	40	-	-

* 사단법인 종묘생산협회 제공.

량 입식으로 어가가 하락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자연산 치어의 불법 채포와 대량 입식은 어류양식업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 동안 연안 자원 조성용으로 꾸준히 방류하였던 어류를 재포획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2002년은 2001년과 비교하여 종묘 생산 물량이 25,668만마리로 68% 생산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특징적으로 조피볼락 생산량이 뚜렷하게 감소하였다(표 4). 이는 어류 양식업계의 출하부진 등 전반적인 침체로 인해 입식이 상당히 감소한 결과이며, 또 매년 야기되는 자연산 조피볼락의 대량 입식 때문에 인공 종묘생산을 기피한 결과로 이해된다.

이에 반해 참돔을 비롯한 각종 돔류의 종묘 생산량은 총 8,268만마리로 조피볼락의 종묘생산량

을 넘어서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조피볼락에 편중되었던 양식품종이 다양화되었다는 긍정적인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또 다른 “돔 파동”을 야기 할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해산어의 영업실적 부진으로 최근 전북 양식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또한 정부의 적절한 정책 대안이 없다면 해산어류가 겪었던 전철을 다시 밟게 될 것이 자명하다(표 5). 실제 1997년 대비 2001년 전북 생산량은 약 6배 정도 증가하였고, 최근 3년간의 전북 생산량은 매년 2배 정도씩 증가하고 있다. 현재의 생산 증가 추세라면 2004년에는 연 800톤 이상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거래되고 있는 전북의 가격 기준으로 대략 계산하면 거의 생산 원가 수준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판단된다(표 5).

표 5. 전복 양식 현황

구 분		연 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종묘	생산량(만)		-	-	-	8,993	27,498	37,166
양식	수조(m ²)		-	118,123	142,071	153,507	175,262	-
		면적	-	227	317	613	938	-
면적	채룡(ha)		-	-	-	-	-	200.7
	가두리(ha)		-	-	-	-	-	-
양식	생산량(톤)		112.4	138.1	193.9	303.7	655.9	-

표 6. 수입 활어 현황

구 분		계	붕 어	홍민어	돔	점농어	기 타
2001	계	43,511	9,265	5,665	2,587	3,561	22,433
	중 국	36,734	9,265	5,665	707	2,971	18,126
	일 본	3,262	-	-	1,880	590	792
2001.10	계	37,758	8,239	4,727	2,252	2,950	19,590
	중 국	31,622	8,239	4,727	642	2,492	15,592
	일 본	2,731	-	-	1,610	458	663
2002.10	계	42,336	9,035	4,467	1,232	3,226	22,473
	중 국	36,740	9,035	4,467	1,232	3,226	18,780
	일 본	2,834	-	-	1,497	406	931

WTO 협정에 따른 수입 자유화 문제를 사전에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문제점도 있다. 주변국가의 수산물 물동량을 점검하여 자국의 수산양식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없었고(표 6), 수입증가에 따른 적절한 규제 방안과 대책이 없어 지금의 물량증가 파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또한 학계 관련자와 공무원들은 현장의 애로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를 예견하여 정책에 반영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물론 현장에서 종사하는 양식인들 역시 힘겨

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여, 오늘날 이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한 면죄부를 받을 순 없다. 과거 60년대에 수산 및 양식 업계는 국가 총 GNP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비중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양식업은 단위 생산 당 높은 마진을 올려왔었다. 물론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생물 산업이다 그러하듯이 단위 생산금액 당 소모되는 노력은 다른 업종과 비견할 바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상품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시기이다. 막연히 생산만이 주가 되었던 시기는 지나가고 있다. 예전의 영화를 바라기보다는 생산 원가의 절감, 경영 합리화, 신기술의 수용 노력 등으로 양식장이 아니라 완전한 한 사업체로서 새로 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 어떤 형태로 판매하고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2. 향후 대책 방안

가. 정확한 생산 통계 체계의 확립

통계 업무가 통계청에서 해양수산부로 다시 이관되었다니 반가운 일이다. 계통 출하 물량이 20% 남짓 밖에 안 되는 현 체제로는 출하되는 양의 정확한 집계는 불가능하며, 그 결과 국내의 소비 및 공급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곤란하여 과잉 생산 및 홍수 출하에 대한 탄력적인 경영이 힘든 상황이다.

양식 수산물만이라도 임의 상장제에서 강제 상장제로 다시 바뀌어야 한다. 양식 어류가 수협을 통하여 유통되면 생산량이 정확히 파악되고, 생산지에서 혈값에 거래된 활어가 소비지에서 3~4배 오른 가격으로 일반 시민에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세원 노출이 안 되는 무등록 활어 유통업자들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도 중요하며, 여론을 조성하여 활어 가격을 하락시키는 일부 활어 중간업자의 농간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약자인 영세 어업인을 보호하면서 사매매업을 제도권으로 수용함으로써 유통구조를 합리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저렴한 가격의 생선회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수요의 창출이 이루

어지는 것이다. 조그마한 밥그릇을 놓고 서로 다툴 것이 아니라 수요를 창출하는 노력이 더욱 절실한 것이다. 양질의 단백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과잉 생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필요하고, 유통의 제도화로 국가 세원의 창출에도 기여하여야 하므로 상장제의 정착을 통하여 수요와 공급을 예측할 수 있는 통계 체계의 도입이 절실한 시점이다.

나. 양식 품종의 다양화

넙치, 조피볼락 등에 국한된 양식 편중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산업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단일 어종의 홍수 출하로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막아야 한다. 품종 다양화를 위해 국립수산물시험원이나 기타 연구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제 어업인에게는 연구 결과가 쉽게 피부에 와 닿지 못하고 있다.

기술 개발은 되어 있으나 대량 생산을 위한 현장 적용이 아직 되지 않은 종들도 많이 있다. 이것들은 민간 배양장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산업화를 앞당길 수 있고, 향후 빠른 시기에 자원 조성용이나 양식 품종으로도 자리 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간 기술에 포함되는 이러한 종묘 대량생산은 필요하다면 업체에서는 단기간에 산업화할 수 있다. 대량 생산이 안 되는 어종의 생산원가를 산출하고, 거기에 기업 이윤을 더하여 방류용으로 고시하면 종묘생산 업체들은 큰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양식 품종의 다양화는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연구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산업화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다. 어업권의 구조 조정

어선 감척 같은 어업권 소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매년 피해를 입는 어장, 즉 적조피해, 태풍 피해 및 동사 피해가 속출하는 어장은 소멸 보상하여 어업권을 없애거나, 조류 흐름이 좋은 외해어장으로의 이설이 필요하다.

라. 원산지 표시 의무화

수입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의무화해야 하고 중금속, 항생제, 어병 검사도 강화해야 한다. 일본 같은 경우도 자국의 어업인 보호 차원에서 검사를 수시로 강화해 어가 하락을 막고 자국 어업인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마. 생산원가 절감

고품질, 저단가의 배합사료를 개발·보급해야 한다. 생사료를 공급함으로써 파생되는 부대시설, 장비, 인건비 등 제 경비를 절감함으로써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으며, 바다 오염을 줄여 환경도 보호 할 수 있다.

3. 결론

정보를 교환하며 서로를 격려하던 양식업 종사자들은 산업 자체가 수렁 속으로 빠지자 서로 맞보증 때문에 공멸하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 엄청나게 붙어 난 대출금과 빚독촉 부담감으로 야반도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사체가 얼마나 하는 말들이 일상의 대화거리로 오르내리는 현실이 암담할 뿐이다. 그러나 주저앉아 누구를 탓할 수는 없다. 오늘의 이 상황들은 내가 바로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임을 인지하고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나서서 반성 할 것은 반성하고 정부 기관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정책과 대책 마련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집단 이기주의에 물든 어업인이 아니라 전체 양식 산업을 위한 어업인으로 새로 태어나 올바른 행정과 정책 입안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제 양식생물이 고가인 시대를 그리워하지 말고, 힘을 내어 스스로 국제경쟁력을 갖는 진정한 산업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